



이 동 식 / KBS-TV 편집주간

# 살아있는 역사

다 이애나도 가고 테레사 수녀도 갔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나 휴렛 팩커드의 총수 등 쟁쟁한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남성들의 고른 관심을 끌만한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은 힐러리 클린턴. 아니 이제 클린턴이란 이름보다는 힐러리란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여성, 앞으로는 전 미국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가 아니라 빌 클린턴이 힐러리 남편이라고 선전하고 다녀야 할지도 모를 그런 여성이다. 그러기에 그녀의 자서전에 '살아있는 역사'라는 오만한 이름을 붙여도, 부시 대통령에게는 가장 오만한 정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미국의 언론들도, 여기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왜 그럴까? 힐러리는 어떻게 이 시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차기 미국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위치에서 사실상 세계 여성을 대표하게 됐을까?

1957년 미국에 앞서 소련이 인류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당시 10살이던 소녀 힐러리는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에 편지를 썼다.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그러나 "소녀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에 분노하고 그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지지 않는 여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그녀의 경력을 보면 그 점이 뚜렷이 확인된다.

졸업논문에서 빈민에 대한 연구를 다룰 정도로 중 상류층답지 않게 사회저변에까지 의식의 문을 넓히며 살아온 힐러리는 변호사 시절 이후 퍼스트레이디 때에도

사회 기층민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한때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잡아먹을 뻔했던 남편의 외도에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르윈스키를 한낱 보잘 것 없는 창부로 전락시킨 힐러리, 그녀는 이제 뚜렷한 주자가 떠오르지 않는 민주당에서, 이라크전의 여세를 몰아 의회까지도 석권하려는 야심만만한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을 일으켜 세울 가장 확실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녀의 입에서 '수락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질 것인가 안떨어질 것인가를 놓고 돈을 건다면 아니라는 쪽에 거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이번에 그의 성장기를 밝혀주는 자서전이 나와 2주일만에 60만 권 이상이나 팔려나가는 것을 볼 때 힐러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될 야심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나는 이 시대 여성의 역할을 상징한다”며 13살 이후로 지금까지 백악관 생활을 빼고는 줄곧 직업을 가지고 일했기에 “누구의 아내로만 불린다는 것은 어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결혼을 하고도 클린턴이 주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클린턴”이라는 성 대신 자신의 성 “로댐”을 고집했다.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 힐러리는 웨슬리 대학과 예일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젊고 능력 있는 변호사였다. 백악관의 안주인으로 8년을 보내는 동안 “설치고 다니는 미시즈 프레지던트”라는 비방을 넘어서서 “퍼스트 레이디 클린턴”에서 연방 상원의원인 “힐러리 로댐 클린턴”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될 것인가로 모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입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이 나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이번 2004년 선거가 아니라면 다음 2008년 선거에서는 꼭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과연 힐러리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힐러리는 소녀였기에 우주인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제는 그동안 미국의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절대 불가능했던 역사를 쓸 수 있을까? 힐러리는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스스로 선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힐러리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여성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PPFK**